

민주 원내대표 주자 박광온·홍익표 “총선 승리” 한목소리

비명 vs 친명 양강구도...이원욱·안규백·윤관석 출마 검토 대여 협상력 위해 2주일 앞당긴 이번달 28일 선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3선의 박광온·홍익표 의원이 10일 '총선 승리'를 목표로 제시하고 표밭 같이 나섰다.

친명과 비명 간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선거는 '비명'계(비이재명)인 박광온 의원과 '친명'계(친이재명)인 홍익표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원내대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범 친명계 후보들도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비명계에서는 박 의원 이외에도 이원욱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지만, 이 의원은 강성 비명계로

좁히면서 친명계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이 상대적으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3선의 홍익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의 안규백 의원과 3선의 윤관석 의원도 출마 선언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양강구로 분류되는 박광온 의원과 홍익표 의원은 나란히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계파 간 안배나 이재명 대표 거취 등 현안을 둘러싼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단합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고, 현 정권 실정이나 폭주는 막아내자는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 소통이 중요하다”며 “(나는) 소통에서 강점이 있다. 통합을 이뤄내는 데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지도부를 단일한 색깔로 구성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대표와 가까운 분을 찾는 것보다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통합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명료하게 말했다”며 “그것이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정제된 언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계파 입장에 서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정책적 유능함을 가지고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야 하므로 친명·비명 구도에 몰두할 여유가 없다”며 “우리당이 ‘친명이나, 비명이나’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튿날인 28일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매년 5월 둘째 주에 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에는 여당과의 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길 예정이다.

여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민주당도 새 얼굴을 내세워 협상력을 키우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 날짜를 이달 말로 앞당기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시작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첫번째 토론자로 나와 발언하고 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특검’ 또 파행

여당 법사위 불참...민주, 오늘 법안심사소위서 의결 방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축조 심사를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오는 11일 법안심사 1소위 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소위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

의장에서 민주당의 회의 개최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중도 퇴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법사위 1소위를 오늘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체 민주당이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법조계의 많은 전문가들조차 비판하고 있다”며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후쿠시마 방문단 “현지 주민도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간담회 “국민 우려 日에 전달”...국회 내 논의 기구 신설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이번 방문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와 여론을 일본에 정확히 전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도쿄전력과 우리 정부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방류수 관련 데이터 제공을 강력하게 요구해 한일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에 나설 조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우리가 만난 현지 주민들 전부가 방류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방류 외에) 육상수조를 만들어 보관하는 대안이 있다고 한다. 결국은 비용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이번 방문을 ‘제2의 광우병 사태 선동’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방문이 못마땅하면 왜 정부·여당은 일본에 가서 몇몇하게 요구하지 않느냐”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게 그렇게 야당을 폄하하고 조롱할 문제냐”고 반박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현지에서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를 통과하고 나온 처리수임에도 정상적으로 원전을 가동할 때는 검출되지 않는 플

루토늄 등이 다량 녹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스템을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신뢰한다’는 표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방사선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될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과 정당성 받아들였다”는 정도의 표현만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태스크포스(TF)와 2차 면담 및 한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 ▲여야 공동 논의를 위한 국회 기구 신설 또는 국정조사 추진 ▲국제적 논의기구 장설을 위해 국제적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민주 오염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불출마 선언 신호탄 될까 촉각

더불어민주당 오염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10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가까운 현장 소방관 경험에 비추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정치에 투신했다”며 “이제 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저의 사명,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초선 오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오 의원은 불출마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3명의 소방관 순직과 영결식이 끝난 뒤,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발 늦은 현실에 절망했다”며 “지난달 또 한

명의 유골을 현충원에 묻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였다고”고 말했다.

또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무너진 민생 경제와 국민의 고통 속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조차 방탄이라 매도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만큼, 맡겨준 역할에 충실한 뒤 본연의 소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신안동 - 176평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
문의. 010-3605-5000